

제 28 장 예루살렘 교회와 성전의 종말

1.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결의 사항의 선포와 디도의 로마 군대에 의한 예루살렘 성전과 도성의 멸망 사이의 20년 동안의 유대 지방의 기독교의 성쇠는 대부분 기록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1세기 초반의 50년 동안에 의인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음이 분명합니다. 초대 사도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가하는 것에 대한 정보는 부족한 상황이며, 그나마 베드로에 대해서는 약간 알 수 있을 뿐입니다. 베드로는 아마 흩어져 있는 유대인 사회의 선교를 위해 항해를 하였던 것 같습니다. 요한에 대해서는 우리는 잘 모르는데 애매모호할 뿐입니다. 다른 사도들에 대한 자료는 비록 한 두 개가 발견되기는 하지만 더욱 희소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루살렘에 더 이상 남아 있지 않았었다는 것은 확실한 듯합니다.

사도적 권위의 원천에 대해서 유세비우스는 야고보의 우위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안다옥과 로마는 베드로의 우위를 주장합니다. 사도행전에서 야고보는 별로 두드러진 인물로 묘사되어 있지 않으나, 그는 다만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의 의장, 즉 제 1인자로 나타나 있습니다. 야고보와 그의 동료 장로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큰 집단을 관할하는 데 지대한 책임감을 가졌으며, 다양한 기질의 집단을 이끌어 가는 데는 굳은 결의와 기지가 필요한데, 야고보는 그의 믿음의 동료들에게나 또 일반 예루살렘 시민들에게 모두 존경을 받으면서 이 책임을 잘 감당해 갔던 것 같습니다. 야고보는 베드로와 요한이 원방으로 선교여행을 했던 것과는 달리, 멀리 선교여행을 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야고보서에 나타난 대로 유대나 예루살렘보다는 더 넓은 지역에서 사도로서의 그의 권위를 인정받고 있음이 암시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흩어져 있는 열 두 지파에게 문안하노라.” 그런데 주후 62년 베스도가 재위중에 갑자기 죽자 대제사장 안나스 2세는 요세푸스의 말대로, 예수의 동생 야고보를 소환하였으며, 또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율법을 범하였다는 죄목으로 돌을 들어 쳐죽이도록 하였습니다(AD 62년). 이 일의 주동자 대제사장 안나스는 아그립바에 의해 해임당했으나 야고보의 죽음은 예루살렘 교회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었습니다. AD66년 반란이 일어난 후 예루살렘 교회는 애굽 및 요단강 건너편 인적이 드문 곳으로 피난처를 구하려 간 것으로 보입니다.

2. 유대전쟁과 성전파괴: 바울이 가이사라에 2년간 억류되어 있는 동안 때때로 그 당시 그 도시의 유대인들과 이방인 거주자들 사이에서는 충돌이 잦았었습니다. 가이사라에 거주하는 헬라인들은 공적으로 제2계급 시민으로서 취급을 받았고, 기회만 있으면 그들을 괴롭히고 모욕하는 적수 유대인들을 꺾어 놓고야 말겠다는 집념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헬라인들이 유대인의 회당에서 유대인들을 모욕하는 제사를 드렸고, 유대인들은 총독 플로루스에게 뇌물을 주며 헬라인들을 제재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플로루스는 돈은 성큼 받았으면서도 유대인들의 상소는 무시하였습니다. 요세푸스는 이 가이사라의 분쟁이 주후 66년 9월에 발발한 로마에 대항하는 전쟁의 원인들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새 총독 플로루스는 물질에 대한 탐욕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물질에 대한 욕망은 성전보고를 급습하여 로마 제국에 바쳐야 할 것을 강조하면서 17달란트를 강탈한 데서 그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이 행위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신성 모독이었으며, 폭동적인 시위를 유발하게 되었습니다. 이 폭동에 대한 무력탄압이 이어졌고, 반란정신이 급속하게 퍼지게 되었습니다. 사해 서쪽의 요새 마사다를 점령한 유대교의 열심당은 예루살렘에 폭동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이때야말로 그들이 오랫동안 기다리던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메나헴을 지휘관으로 하여 예루살렘으로 진군하여 예루살렘의 서부 지역을 점령했습니다. 메나헴과 성전 책임자 엘레아잘 사이에 싸움이 벌어졌고 2주일간의 맹렬한 전투 끝에 메나헴은 잡히어 그의 부관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열심당원들은 마사다로 다시 돌아가 그곳에서 73년 봄까지 로마군에게 대항하면서 항전을 계속했습니다. 66년 11월 갈루스가 수리아 남방으로부터 군단 병력으로 유대의 총독이 더 이상 제어할 수 없게 된 사태를 진압하러 출정하였을 때, 그는 예루살렘 북쪽 시외의 벳새다를 점령하였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철수를 하고 말았는데, 아마도 그는 자신이 거느린 군대를 가지고서는 예루살렘 도성과 따로이 요새화된 성전 경역의 잔유자들을 소탕할 수가 없다고 계산했던 모양이었습니다.

베스파티안이 다음해 봄 반란을 진압할 사명을 띠고 왔을 때, 그는 갈릴리, 베뢰아, 서부 유대 그리고 이두매오를 서서히 진압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루살렘을 포위할 무렵 네로가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으며, 내란이 잇달아 발발하였습니다. 베스파티안은 사태를 관망하기 위해서 일년 동안 공격을 중지하였습니다. 69년 6월 베스파티안이 반란군을 다시 진압하게 되었을 때, 그는 재빨리 예루살렘을 제외한 온 팔레스타인을 제압하게 되었으며, 헤로데이온, 마사다 그리고 마체루스의 세 성채를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그 해 여름 그는 로마의 사령관들과 동부지방의 군대들에게서 차례차례로 황제로 선포되었으며, 그의 일파들이 그를 대신하여 로마를 점령했을 때, 그는 유대인 반란의 마지막 소탕 임무를 그의 장남 디도에게 맡기고 그의 개인적인 일을 해결하기 위하여 유대를 떠나 로마의 수도로 가게 되었습니다. 디도는 70년 4월 예루살렘을 포위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란군들은 5개월간을 절망적으로 견디었으나, 8월 말 드디어 성전이 점령당하고 불태워지고 말았으며 9월 말에는 그 도시에 남아 있던 모든 잔류자들이 최후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나중까지 남아 있던 세 성채는 연이어 함락되었는데, 이곳을 방어하고 있던 수비군들은 73년 4월인가 5월까지 견디다가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것을 알자, 거의 모두가 자결을 하였습니다.

3. 유대 멸망의 결과: 요세푸스에 의하며 성전파괴은 로마 군대에 의해 불태워졌고, 제사 불가능 해졌습니다. 그러나 유대교와 기독교는 예루살렘 성전 멸망 중에서도 남아 있었으며, 성전이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더욱 활력에 찬 생명력으로 성장해 갔습니다. 대격변이 지난 후, 요하난은 유대 서쪽에 위치한 잠니아에 유대 율법 연구 학교를 세우도록 로마 정부로부터 허락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율법 박사들로 구성된 새로운 산헤드린이 설립된 것입니다. 이 새로운 산헤드린은 이스라엘의 흩어진 백성들을 다시 모으는 역할을 하는 중심이 되었을 뿐 아니라, 로마인들의 눈에 산헤드린 자체가 어떤 상당한 권위를 갖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산헤드린은 유대 율법을 조직화하는 최고의 사법기관으로서의 직무를 갖게 되었

습니다. 수백년 동안 구전되어 온 율법이 집약되고 정리, 분류되어 법전으로 편찬되었습니다. 요하난과 그의 주요 동료들은 힐렐 학파에 속하였는데, 이들은 그 율법 해석의 주류에 있어서 상당한 의견의 일치를 보였습니다. 특별히 아키바와 메이르 두 율법 학자들의 책임 아래서 미쉬나라고 불리우는 종교법이 집대성 되었습니다. 새로운 산헤드린이 유대인의 민족적 생존을 위해 필요한 결합력을 제공하였다면, 회당이 지방 수준에서 그 결합력을 제공하였으며 참으로 산헤드린이 회당을 통하여 그 권위를 행사하였던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 성경의 정경은 잠니아에서 논의되고 그곳에서 확장되었을 뿐 아니라, 그 본문과 해석까지도 그곳에서 결정되었습니다. 콤란 사본에서 '원 맛소라' 사본은 히브리 사본의 양식과 함께 70인경 역본과 사마리아 성경기초를 이루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 2성전이 멸망된 후, 유대인들이 '원 맛소라' 외의 다른 본문들을 인정하거나 사용하였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70인경 역본은 기독교인들이 이방인 선교에 아주 자유롭게 사용하였으므로 유대인들이 기독교인 역본으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4. 유대 멸망 이후의 기독교: 주후 73년과 132년 사이에 예루살렘의 폐허화되어 버린 고토에 일부 정착민들이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약간의 유대인 기독 신자들이 그곳에 정착하고 있었다고 전해지지만, 그러나 다시는 예루살렘이 유대인의 기독교 중심지가 되지 못합니다.

갈릴리의 기독교는 주후 73년 이후 여러 세대를 두고 그 번영을 누려 왔습니다. 그러나 132년에 하드리아니가 할례를 금지하는 령을 발표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벤코세바가 폭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나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벤 코세바의 메시아적 주장을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반란에 전적으로 동조할 수가 없었습니다. 폭동이 진압되고 예루살렘의 폐허 위에 엘리아 캐피톨리나의 이교도 도시가 건설되었으며, 유대인 기독 성도들은 대체로 유대인들과 함께 그 도시로부터 추방되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유대인 기독교인들의 잔존자들이 그 후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역사적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롬이 수리아의 베뢰아에서 알고 있었던 나사렛 사람들과 같이, 그들이 카톨릭 교회와 관계를 가졌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그들이 정통적인 유대인들이나 카톨릭 기독교인들로부터 다 같이 분리되어 나와서 흩어진 예루살렘 교회일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가난한 사람들', 헬라와 라틴 교부들의 예비온파라고 불렀습니다. 저스틴에 의하면 유대인의 율법에 대해 헌신하며 후에 '양자 기독론'이라는 것을 결합시킨 무리가 있었으니 이들에 대해서 저스틴은 구원받을 가망이 없겠다고 보았습니다. 이들은 예수를 하나님께서 메시아로 선택하신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지닌 인간의 후손일 뿐이라고 믿었으며, 만일 이들이 다른 기독교 저자들이 말하는 예비온파라면 그들은 역시 예수를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여기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은 바울을 그리스도의 사도로 인정하기를 거부하였으며, 오직 사도들의 으뜸은 의인 야고보라고 여기었습니다.